

알림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제 29 호
성령강림 후 제 7 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리중앙교회

교회 예배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주로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교리적선언 한국 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신앙독서

기도 가운데 만나는 일 : 자기거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평가와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핵심 정체를 앗아가려는 유혹입니다.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입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다. 다른 사람들로 네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범사의 한 복판에서 끊임없이 그 정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삶의 가장 큰 덧은 성공이나 인기나 권세가 아니라 자기거부, 곧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인기와 권세도 큰 유혹이지만 그 유혹의 질은 이 모두가 자기거부라는 훨씬 큰 유혹의 일부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익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부르는 소리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공과 인기와 권세가 어느새 매력 있는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자기거부의 유혹에 얼마나 빨리 굴복합니까. 일례로 세상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거나 사람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 실수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이 아님에도 우리의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자기거부의 유혹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거부는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나친 자만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우리의 핵심 정체의 진정한 투영은 아닙니다. 자기거부는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선포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존의 핵심 진리는 사랑받는 자로, 또한 한계와 영광을 둘 다 지닌 피조물로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활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적은 여러 형태와 작용으로 나타나는 내 안의 자기거부입니다.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8주)

제1말씀 : 창세기 28:10-19a

제2말씀 : 로마서 8:12-25

시편교송 : 시편 86:11-17

복음서 : 마태복음 13:24-30, 36-43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elle de L'Eglise Mé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 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 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06 58 41 28 08

e-mail: macarius@hanmail.net

예배 봉사 담당자

7월 23일 7월 30일

대표기도 : 김태균 집사 공동기도

제1말씀 봉독 : 정원철 집사 김주은 집사

제2말씀 봉독 : 김지현 성도 이희주 청년

복음서 봉독 : 집례자 집례자

7월 예배 안내 봉사자 : 정원철 집사

7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십시오.

성령강림 후 제 7 주

✚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90 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 (1분간 기도합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57-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ume du jour	시편 119:105-112 (구약 860쪽)	다함께

✚ 영광송 Spotane

2 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공동기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예배 공동체가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비취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뜨거운 햇빛을 머금고 열매와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 역시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르익어 가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 파묻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멈춰버린 영혼에 머물러 아집과 편견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마음을 기울여, 더욱 깊이 알게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나온 무리를 기억 하시오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무리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Parole d'aujourd'hui	요나서 3장 1-10절 (구약 1318쪽)	김정수 집사 홍기원 청년
요절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교 Prédication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397 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 결단의 찬양 Cantique	505 장 1.3절 온 세상 위하여	다함께
✚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 교우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다함께
✚ 축도 Bénédiction		집례자

